

- 9. 종교개혁자 츰빙글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을 중심으로 권선종 _ 239
- 10. 존 칼빈의 경건에 대한 소고 이영식 _ 261
- 11. 교회개혁과 칼뱅의 수사학-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승연 _ 295

「칼빈연구」 투고규정 _ 329

「칼빈연구」 논문심사규정 _ 337

한국칼빈학회 약사 _ 340

한국칼빈학회의 편집 책 목록 _ 345

1 칼빈에게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연구

최정자 박사 / 삼위일체교회 담임목사

1. 서론

고대교회 당시 마르시온 주의와 마니교처럼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날카롭게 분리시켰다. 그들 모두는 구약과 신약을 상치시킴으로써, 구약을 완전히 무시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된 모든 성서가 교회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규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이 이 같은 이원론 속에 뿌리박혀 있다고 부처는 그들을 비판했다. 부처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없고, 상호 일치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의 경륜의 방법과 형식에 관한 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와 구별이 있지만, 이 두 계약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상치와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도 면에서 차이인데, 부처가 이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들은 ‘비교급’으로 이루어진다.” 새 계약에서는 더욱

1) 최윤배, “개혁파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학회 편.

폭넓은 계시와 더욱 강력하거나 풍성한 성령이 중요하다.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구약보다 더욱더 명료해졌고,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더욱더 폭넓게 확산된다. 계약의 약속은 복음 속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약속되었고 받아들여졌다.²⁾ 신약과 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점과 차이점이 부처의 「복음서 주석」(1527), 「요한복음서 주석」(1528) 속에 나타난다. 두 계약 속에 나타나는 일치성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아들, 동일한 성령을 가졌다. 부처가 위에서 이해한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칼빈과 전적으로 일치한다.³⁾

니젤에 의하면 개혁신교회는 구약을 기독교적으로 읽는다. “그들의 교회 및 정치적 실행을 위해서는 신약성서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구약성서의 근원에 까지 소급해 가야만 했고, 따라서 거기에 어떤 통일된 권위를 필요로 했다.”⁴⁾ 방델에 의하면, 칼빈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두 종류의 논쟁자들을 만났다고 말한다. 수많은 재세례파와 로마 가톨릭교회에 반대하여 「기독교강요」(1559)에서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했다.⁵⁾

우리는 본고에서 칼빈이 이해한 신약과 구약 사이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신구약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

칼빈의 경우, 신약과 구약은 내용상으로 일치한다. 방델에 의하면 칼빈에게서 신구약의 내용은 동일한 그리스도이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이 현재 실체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약속의 형태로 보증하고 있다. 신약은 선택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깨뜨려진 옛 계약의 재확립일 뿐이다. 나아가 모든 참된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구약과 무관할 수 없으며, 신구약의 내용은 동일한 그리스도이다.⁶⁾ 부처는 옛 백성과 새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성의 의미에 대해 그의 「에베소 주석」(1527)에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부처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은혜의 내용에 있다고 말한다.⁷⁾

니젤에 의하면 칼빈은 신구약의 내용이 동일한 말씀과 성례를 내포한다.⁸⁾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한순간에 성육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도 그 이후의 시대와 같이 이 성육신의 사건 영향하에 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제약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니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증거자의 말씀과 성례전을 제정함으로써, 경건한 구약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셨고 자기를 비추셨다. 따라서 구약성서는 민족의 종교적 갈망의 전거(典據)가 아니요, 그의 모든 말씀들이 유일한 말씀을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줄 때에는 그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분여한다.⁹⁾ 니젤은 “구약이 말하는 왕과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주장한다.¹⁰⁾ 니젤에 의하면, 예언자들이 보내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계명 자체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율법과 제도의 목표로 지향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¹¹⁾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계시가 있었는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p. 224-225.

2) 위의 책, p. 230.

3) 위의 책, p. 234.

4)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p. 99.

5) 프랑스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p. 248.

6) 위의 책, p. 249.

7) 최윤배, “개혁파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pp. 225-226.

8)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p. 103.

9) 위의 책, p. 103.

10) 위의 책, p. 101.

11) 위의 책,

은 중보자와 무관하게 옛사람들(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은혜의 소망을 주신 적도 없다.”¹²⁾ 교회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는 항상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칼빈이 말하는 교회란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교회도 해당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 받은 씨이다. 그분은 다윗이 생생하게 예표했던 진리이시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그림자처럼 예표했던 실재이다. 다윗에게 그림자들로 존재한 모든 것이 장차 성취되리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선언이었다. 경건하고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성소나, 지상 나라에 구원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께만 있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란 없기 때문이다.¹³⁾

칼빈이 구약성경에서 관심을 갖는 대목은 율법이다. 칼빈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신 신앙 체계를 뜻한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맨 처음에 온 것은 율법이 아니었고 그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약속과 복의 언약이 먼저 왔다. 율법이 그 뒤를 따르되 새롭고 다른 혹은 상반된 것으로 오지 않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항상 언약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 언약의 연장이자 쇄신으로서 왔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¹⁴⁾ 율법은 옛 백성을 율법 안에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다(갈 3:24). 칼빈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유아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사들과 제사장 의복 같은 회화적 이미지 같은 초보적인 다양한 교육보조 수단들이 필요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모호하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했다.¹⁵⁾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 계명들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가(imputation)와 중생으로써 의를 베푸시기 전에는 율법이 의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덕법은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다.¹⁶⁾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만든다. 철저하고 어김없는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능력이 없으며, 인간은 생명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이룰 수 없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곤 불순종에 붙은 경고뿐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룰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시고는 그것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좋은 약속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고, 자신의 순종을 우리에게 복으로 내리셨다.¹⁷⁾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주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구약성경에서 확증하고 있다. 칼빈이 구약성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율법이다.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간적인 조상들의 두 반열, 즉 왕으로서 그리고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언되었다. 그리스도는 구약성경 전체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의미를 약속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¹⁸⁾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¹⁹⁾ 칼빈은 족장들이 우리와 같은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같은 기업에 참여하며, 같은 구원을 바라보지만, 그 동참에서 그들과 우리는 경우가 어느 정도로 같은가를 논한다. 칼빈에 의하면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언약과 실체는 같다.”²⁰⁾

1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역, 「기독교강요」(1559)(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이후부터는 「기독교강요」를 *Inst.*로 1권 I장 1항을 I i 1로 표기하기로 한다. II iv 2.

13)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신학입문」(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pp. 85-86.

14) 위의 책, p. 86.

15) 위의 책, p. 86-87.

16) 위의 책, p. 87.

17) 위의 책.

18)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p. 248.

19)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p. 101.

2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역, 「기독교강요」(1559)(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II x 1.

칼빈은 신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밝힌다. 첫째로, 노력할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영생의 희망을 주셨고, 선택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선택을 보증하시며, 확인하셨다. 둘째로, 그들을 주 하나님께 묶어 놓은 계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유지되었다. 셋째로,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²¹⁾

칼빈에 의하면 “신구약은 영생문제에서 일치한다.”²²⁾ 구약의 조상들은 1)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고, 2) 미래의 축복은 그에게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다. 즉,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약은 땅에 붙은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다는 것이다.²³⁾ 칼빈은 신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과 내용상의 일치점과 형식과 방법과 정도 면에서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실질과 실상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지는 신구약이 하나이며, 다만 처리방법이 다르다.”²⁴⁾

칼빈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증언하며, 복음은 사람의 심정을 현세의 기쁨에 국한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는 경지로 들어 올린다고 말한다.²⁵⁾ “구약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을 토대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중보(仲保)에 의해서 확립되었다.”²⁶⁾ “복음의 약속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구약이 특히 내세에 관심이 있었다.”²⁷⁾ 결국 구약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21) *Inst.*, II x 2.
 22) *Inst.*, II x 22.
 23) 위의 책.
 24) *Inst.*, II x 2.
 25) *Inst.*, II x 3.
 26) *Inst.*, II x 4.
 27) *Inst.*, II x 3.
 28) *Inst.*, II x 5.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다.”²⁹⁾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은총을 상속할 자라고 선언하며, 그 이유로 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 백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 포함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보증하였다.³⁰⁾

3.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신약과 구약은 형식상, 정도 면에서, 그리고 비교급상으로, 다시 말하자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하나님의 경륜방법상의 차이이다. 니젤에 의하면 “복음이란 본래의 의미에 의하면 약속을 실현하신, 계시된 그리스도를 엄숙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신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구약은 성육신하실 분을 선포하는 까닭에 신구약을 분명하게 구별한다.”³¹⁾ 신약은 채색된 그림이요, 구약은 암영(暗影)이다.³²⁾ 니젤은 “신구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을 증거한다. 양자(兩者)가 다같이 한편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한편은 저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말한다.³³⁾ “하나님의 경륜과 시혜방법과 관련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³⁴⁾ 방델에 의하면 구약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표적과 성찬으로 영적인 떡을 떤었고, 동일한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³⁵⁾ 니젤에 의하면, 구약의 의

29)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p. 227.
 30) *Inst.*, II x 22.
 31)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p. 102.
 32) 위의 책.
 33) 위의 책.
 34)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pp. 225-226.

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본질과 진리성이 우리에게 옹계 보유된다고 말한다. 구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³⁶⁾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서 약속들이 결국 동일하며, 둘 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 옛날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기를 바라셨으나,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속한 혜택들을 통하여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이다.³⁷⁾

칼빈은 구약의 유효성을 부인하지 않은 채 신약의 일정한 우월성을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으셨으나 마침내 복음 안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예물들과 제사들로써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과 자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온전한 광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로 당시에도 알려지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³⁸⁾ 칼빈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논의한다. 신구약의 차이점은 “성경의 엄연한 통일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³⁹⁾

첫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⁴⁰⁾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 유산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소망을 잘 배양해서 땅에 붙은 혜택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며, 맛보게 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이 내세의 은총을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하시므로 구약 시대와 같이 낮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⁴¹⁾ 구약에서는 하

35)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p. 251.

36)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p. 103.

37) *Inst.*, II xi 1.

38) *Inst.*, II viii 1.

39) *Inst.*, II xi 1.

40) 위의 책.

41) 위의 책.

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훌륭한 유일한 보상이라고 말하며,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추방되며, 외국 땅으로 흩어지리라고 말한다. 구약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거의 이 땅에 있다.⁴²⁾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상적 혜택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친히 그들의 손을 잡아 천상적인 일에 대한 희망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리스도가 계시된 후에는 그것은 하늘 상속을 예표한 것으로 해석된다.⁴³⁾

구약 백성은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였다. “그는 유대민족을 어린 상속자, 즉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없어서 후견인 또는 청지기의 책임에 맡겨져 있어서 그의 보호를 받는 그런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다”(갈 4:1-2).⁴⁴⁾ 유대민족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유업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아직 어려서 그것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교회가 존재하였으나 아직 어린 유아기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⁴⁵⁾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서 구별된 것은 자기들 자신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기독교 교회로 하여금 외형을 보고 그것으로 영적인 것들의 증거를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갖 지상적인 은혜들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친히 손으로 이끄사 하늘에 속한 것들에 소망을 갖도록 하기 원하셨음을 보여 준다.⁴⁶⁾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일을 그들의 최고의 궁극적인 축복으로 여겼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후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늘의 기업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데 반하여, 우리는 그들이 땅의 소유를 누렸으나 동시에 그들은 그렇게 땅의 소유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고 믿은 그 미래의 기업을 마치 거울로 보듯이

42) 위의 책.

43) 위의 책.

44) *Inst.*, II xi 2.

45) 위의 책.

46) *Inst.*, II xi 1.

바라보았다.⁴⁷⁾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하늘의 복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상의 복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받은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전에서 소망으로 직접 받았다.⁴⁸⁾ 칼빈은 “지상적 약속은 구약교회의 유년기에 해당했고 지상적인 것에 소망을 국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⁴⁹⁾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가 거저 듣고만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더 위대한 약속으로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려 주를 향하게 하셨다. 칼빈은 땅에 대한 약속은 자기의 인애의 상징과 하늘 유업의 예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⁵⁰⁾ “신체적인 혜택과 신체적인 벌은 예표이다.”⁵¹⁾ 주께서는 현재의 혜택으로 신자들에 대한 자기의 인애를 증거하실 때 이런 예표와 상징으로 영적 행복을 예비하신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신체적인 처벌로 장차 악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증명하셨다.⁵²⁾

둘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구약시대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진상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이다.⁵³⁾ 칼빈은 부처와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대에는 구약성경이 상징으로써 그것을 제시하였으니, 본질 대신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히브리서를 예로 들었다.⁵⁴⁾ “구약은 실재가 없기 때문에 실제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였을 뿐이고, 신약은 진상의 실체 그 자체를 현재 있는 것으로서 계시한다.”⁵⁵⁾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들로 알려지셨던 중보자가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시점에 이르면 모호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에서 중보자로서 사역하신 하나님 아들 역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⁵⁶⁾ 칼빈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참된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히 10 : 1).⁵⁷⁾ 그리스도께 영원한 제사장직이 주어졌으므로, 제사장이 매일 교체되는 그런 제사장직은 폐지된 것이 분명하다(히 7 : 23). 이 새로운 제사장 제도는 맹세로써 세워진 것이므로 확실한 효용이 있을 것이다(히 7 : 21).⁵⁸⁾

칼빈에 의하면, ‘그들과 빛’, ‘그림자와 실재’의 은유들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다양한 부분들이 벽에 드리운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다. 신약은 과거에 그림자로 비춰졌던 몸(물론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간적 육체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와 친히 행하시고, 겪으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실재적으로 계시한다.⁵⁹⁾ 구약은 독자적인 그늘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칼빈에게서는 예표(type)가 어떤 중요한 점에서 장차 오실 중보자를 미리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한 옛 언약하의 제도나 사람이다.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제사의 예표들이다. 다윗 왕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 결과 구약은 ‘몸’이 그것의 ‘그림자’를 대체할 때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히 구별되고 수립된 뒤에 새롭고 영원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그것을 자기의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진실(즉, 그림자와 대조되는 실재)이 그분의 피로써 인 쳐질 때 하나님의 언약과 진정으로 일치하며, 그 진실에 의해서 새롭고 영원하게 된다는 뜻이다.”⁶⁰⁾

즉,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으셨으므로, 제사장이 매일 교체

47) *Inst.*, II xi 1.

48)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신학 입문」, p. 93.

49) *Inst.*, II xi 2.

50) 위의 책.

51) *Inst.*, II xi 3.

52) 위의 책.

53) *Inst.*, II xi 4-6.

54)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p. 253.

55) *Inst.*, II xi 4.

56) Parker, pp. 94-95.

57) *Inst.*, II xi 4.

58) 위의 책.

59) Parker, p. 94.

60) *Inst.*, II xi 4.

되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된 것이 확실하다. 이 새로운 제사장 직분은 맹세로 제정된 것이므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율법에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가 있었고, ‘일 자체의 산 형상’은 없었다.⁶¹⁾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인도 되었다.”⁶²⁾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 칼빈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상속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어려서부터 후견인의 책임 아래 맡겨졌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위대하고 찬란한 계시도, 분명한 깨달음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멀리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연약한 깨달음의 상태를 바울은 ‘어렸을 때’로 묘사하고 있다.⁶³⁾

셋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다.”⁶⁴⁾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며, 돌판에 새겼으며, 죽음이고,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사람의 마음에 새겼으며, 생명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⁶⁵⁾ 율법의 기능은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하며,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범법 행위를 형벌로 위협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마음의 부패를 변화시키거나 교정시키지 못하는 것이다.⁶⁶⁾ “성령이 계시지 않을 경우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계시는 경우,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영적이다. 두 계약의 차이는 질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만 양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⁶⁷⁾ 칼빈에 의하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며, 율법은 정죄에 속하는 것이요, 복음은 의에 속하는 것이며, 율법은 없어질 것이요,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고후 3 : 6-11).⁶⁸⁾

구약이 문자적이라는 것은 영의 역사가 없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사람들의 심정에 영적으로 새기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약은 현장에 없는 것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때가 오면 죽어 없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복음은 본체를 나타내므로 영원히 굳게 서 있다.⁶⁹⁾ 구약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이 온 인류를 저주에 싸이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약이 생명을 주는 도구인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기 때문이다(고후 3 : 16). 구약이 정죄의 직분인 것은 그것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불의한 자들로 정죄하기 때문이다. 신약이 의의 직분인 것은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고후 3 : 9).⁷⁰⁾ 구약이 없어질 것들의 형상을 담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시간이 되면 죽고 없어지게 되어 있고, 복음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고후 3 : 10-11).⁷¹⁾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의 영으로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을 모으사 그의 교회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와의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 매우 적었다.⁷²⁾

넷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가 대조를 이룬다.⁷³⁾ 구약은 율법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노예의 언약이며 무력하다. 그러나 신약은 복음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며, 견고한 언약이다.⁷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순종해 온(갈 5 : 6) 약속의 자녀들(롬 9 : 8)은 태

61) 위의 책.

62) *Inst.*, II xi 5.

63) 위의 책.

64) *Inst.*, II xi 7-8.

65) *Inst.*, II xi 7.

66) 위의 책.

67) 최윤배, “개혁파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p. 229.

68) *Inst.*, II xi 7.

69) *Inst.*, II xi 8.

70) 위의 책.

71) 위의 책.

72) 위의 책.

73) *Inst.*, II xi 9-10.

74) *Inst.*, II xi 9.

초부터 새 언약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해 온 것은 육신적이고, 지상적이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신령하며, 하늘에 속하며, 영원한 은혜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들은 특별히 중보자를 믿었고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함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⁷⁵⁾

칼빈에 의하면 구약은 '종노릇' 하는 상태요, 신약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유'에 속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 칼빈은 바울의 글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여종인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받은 시내 산의 모형이며, 자유인 사라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하갈의 후손은 종의 신분으로 출생하여서 기업을 받을 수 없고,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기업을 이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상태였으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 회복되는 것이다(갈 4:22-31).⁷⁶⁾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 준수만을 고집하는 것은 온갖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는 것이다.⁷⁷⁾

구약은 양심을 두려움과 떨림에 빠지게 하나, 신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심이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구약은 종노릇의 멍에로 양심을 매어 놓으나, 신약은 자유하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⁷⁸⁾ 족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종노릇하는 처지에서 압박을 받아 양심의 곤고함이 있을 때에 복음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일상적인 율법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그런 악한 처지에서 해방된 것이야말로 바로 신약의 특수한 열매인 것이다.⁷⁹⁾

다섯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구약은 한 민족에,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

다."⁸⁰⁾ 그리스도의 강림 시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성별해 주셨으나, 다른 민족은 속화(俗化)되었으며 외인이라는 것이다.⁸¹⁾

이스라엘은 신뢰와 안전한 보호를 받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몽매함 속에서 내버려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하셨으나, 다른 이들은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존귀함을 받았으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⁸²⁾ 이방인을 부르실 때에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선지자들의 글에서 입증되었다. 그 성취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까지 연기되었던 것이다.⁸³⁾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사역 초기에는 그 일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기하셨다가, 후에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의 비하(卑下)의 때를 끝마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꿇게 될 때에(빌 2:9-10) 비로소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⁸⁴⁾

4. 결 론

칼빈이 이해한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 신구약의 유사점과 동시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신약과 구약은 내용상, 본질상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첫째 유사점은 칼빈의 경우, 신약과 구약은 내용상으로 일치한다. 방델에 의하면 칼빈에게서 신구약의 내용은 동일한 그리스도이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이 현재 실체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약속의 형태로 보증하고 있다. 신약은 선택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깨뜨려진 옛 계약의 재확립일 뿐이다.

둘째 유사점은 칼빈에 따르면, 신구약의 내용이 동일한 말씀과 성례를 내포

75) *Inst.*, II xi 10.

76) *Inst.*, II xi 9.

77) *Inst.*, II xi 10.

78) *Inst.*, II xi 9.

79) 위의 책.

80) *Inst.*, II xi 11-12.

81) *Inst.*, II xi 11.

82) 위의 책.

83) 위의 책.

84) 위의 책.

한다는 것이다.⁸⁵⁾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한순간에 성육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있다.

셋째 유사점은 칼빈에 의하면, 신구약에서 중보자가 없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고 소망을 주신 적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복되고 행복한 상태로 세워졌고 영생문제도 일치한다.

첫째 차이점은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구약에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유산을 사모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이 내세의 은총을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하시므로 구약시대와 같이 낮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차이점은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들로 알려지셨던 중보자가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중보자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구약은 죄를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히 10 : 1).

셋째 차이점은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다.”라는 것이다.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며, 돌판에 새겼으며, 죽음이고,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사람의 마음에 새겼으며, 생명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⁸⁶⁾

넷째 차이점은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라는 것이다.⁸⁷⁾ 구약은 율법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노예의 언약이며 무력하다. 그러나 신약은 복음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며, 견고한 언약이다.

다섯째 차이점은 구약은 한 민족에,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다. 그리스도의 강림 시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성별해 주셨으나, 다른 민족은 속화(俗化)되었으며, 외인이라는 것이다.⁸⁸⁾

그러나 신약과 구약은 형식상, 정도 면에서, 그리고 비교급상으로, 하나님의 경륜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방법상의 차이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 유사점은 동일한 삼위일체 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백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기독교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바로 전에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다룬 것은 구속사라는 큰 틀 속에서 기독교론을 위치시키는 의의가 발견된다.

고대 교회 당시에 마르시온 주의자나 재세례파나 마니교도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칼빈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상호 대치나 상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칼빈은 유대주의나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신약을 무시하지 않는다.

칼빈은 이 같은 사상들에 반대하여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신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잘못에 반대하기 위해 칼빈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신학과 목회현장에 적용해 보자. 목회현장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성막이론을 통해서 신약에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율법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학에서는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성경주석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이 이해한 신구약의 관계성에서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도 신학적 글 속에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항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균형 있게 사용되고,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85)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p. 103.

86) *Inst.*, II xi 7.

87) *Inst.*, II xi 9-10.

88) *Inst.*, II xi 11.

참고문헌

-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 안명준, 「칼빈의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4.
-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이형기,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학회 편,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제18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 Volume 3 : Sin and Salvation in Christ*,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 Baker Academic, 2007.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1559),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Par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신학입문」,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Wendel, F,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한글초록】

칼빈이 이해한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 신구약의 유사점과 동시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신약과 구약은 내용상, 본질상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첫째 유사점은 칼빈의 경우, 신약과 구약은 내용상으로 일치한다. 방델에 의하면, 칼빈에게서 신구약의 내용은 동일한 그리스도이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이 현재 실체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약속의 형태로 보증하고 있

다. 신약은 선택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깨뜨려진 옛 계약의 재확립일 뿐이다.

둘째 유사점은 칼빈에 의하면 신구약의 내용이 동일한 말씀과 성례를 내포한다.⁸⁹⁾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한순간에 성육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있다.

셋째 유사점은 칼빈에 의하면, 신구약에서 중보자가 없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고 소망을 주신 적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복되고 행복한 상태로 세워졌고 영생문제도 일치한다.

첫째 차이점은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구약에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유산을 사모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이 내세의 은총을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하시므로 구약시대와 같이 낮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차이점은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들로 알려지셨던 중보자가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중보자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구약은 죄를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히 10 : 1).

셋째 차이점은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다.”라는 것이다.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며, 돌판에 새겼으며, 죽음이요,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사람의 마음에 새겼으며, 생명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⁹⁰⁾

넷째 차이점은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라는 것이다.⁹¹⁾ 구약은 율법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노예의 언약이며 무력하다. 그러나 신약은 복음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며, 견고한 언약이다.

다섯째 차이점은 구약은 한 민족에,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다. 그리스도의 강림 시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

89)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p. 103.

90) *Inst.*, II xi 7.

91) *Inst.*, II xi 9-10.

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성별 해 주셨으나, 다른 민족은 속화(俗化)되었으며, 외인이라는 것이다.⁹²⁾

그러나 신약과 구약은 형식상, 정도 면에서, 그리고 비교급상으로, 하나님의 경륜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방법상의 차이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 유사점은 동일한 삼위일체 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백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기독교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바로 전에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다룬 것은 구속사라는 큰 틀 속에서 기독교론을 위치시키는 의의가 발견된다.

고대 교회 당시에 마르시온 주의자나 재세례파나 마니교도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칼빈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상호 대치나 상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칼빈은 유대주의나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신약을 무시하지 않는다.

칼빈은 이 같은 사상들에 반대하여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신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잘못에 반대하기 위해 칼빈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신학과 목회현장에 적용해 보자. 목회현장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성막이론을 통해서 신약에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율법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학에서는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성경주석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이 이해한 신구약의 관계성에서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도 신학적 글 속에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항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균형 있게 사용되고,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칼빈, 구약, 신약, 차이성, 일치성, 구속사

【Abstract】

John Calvin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is an essential unity between the old and new covenants. It is a Trinitarian unity between the old and new covenants or a Christological-Pneumatological unity between the two covenants, which is related to the same God, the same Christ, the same Mediator, the same Spirit, the same covenant of grace, the same faith, the same hope, the same teaching, the same church, the same piety, the same salvation, etc. When describing the differences Calvin does so in terms of the compar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covenants lies under pressure from two sides. The conflict with Rome forced him to put all the emphasis on the spiritual character of the new covenant in comparison to the old covenant. The conflicts with the Anabaptists forced Calvin to put the emphasis on the unity of the two covenants.

【 Key word 】

Calvin, Old Testament, New Testament, unity, difference, Salvation History

92) *Inst.*, II xi 11.